

행함에는 >>>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사랑이 좋아 그 사랑 조금씩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FAITH IN ACTION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행함

1



2020

열 아홉번째 >>>

하나님과 팔 걸고 행하는
아기 손 크기의 작은 이야기들



이달의 행함킹: 서영미 전도사 죽기 전에 보아야할 명인 1명

서영미전도사를 마주 대하면 아깝다는 생각부터 든다. 더 넓은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참 아깝다.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다. 못하는 게 있어야지. 일처리, 뛰어난 언변, 따를 수 없는 두뇌, 하여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다 가졌다. 살아온 그녀의 성공적인 삶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직접 만나라. 일일이 증명하려면 입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 초개로 보이게 하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녀의 신앙에는 사랑이 많다. 몇 안되는 작은 교회 아이들에게 보여주던 그 맑은 사랑지도. 가끔씩 지나다가 본 그녀의 가르침은 그냥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당당한 믿음에 항상 겸손을 잃지 않던 모습 또한 쉬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을 지인으로 두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사람들은 죽기 전이라는 말을 잘한다. 죽기전에 꼭 보아야할 영화 5편, 죽기전에 꼭 가봐야할 명소 10 군데, 뭐 등등.

나는 죽기전에 만나야 할 사람 중의 한명으로 그녀를 선정해 추천한다. 이런 하나님의 딸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한다는 것은 불행중 불행이다. 당장 보고 싶다고? 꿈깨시라. 귀한 사람은 그리 쉽게 만날 수 있는게 아니다. 적어도 올 여름에나 되어 만날 수 있다. 왜냐고? 비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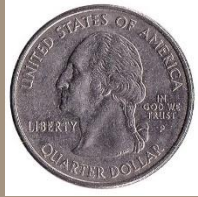
성경을
옆에 두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되는 대로
읽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

작은 행함을 끊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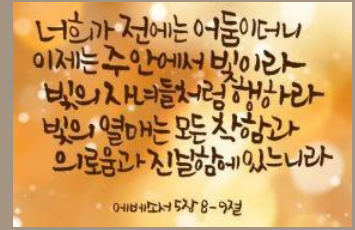
카톡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는 카톡을 보낸다. 똑 같은 것 아무에게나 날리는 스팸 카톡이 아니다. 상대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카톡만 골라서 날린다. 받는 사람은 유익한 정보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으이그!!!
실수로 음식 컨테이너를 놓쳤다. 보고 있던 베틀이 허를 찬다.
“그러게 어려운 게 있으면 나 부르랬잖아.”
그녀가 다가와 정리해 준다. 듣기 좋은 핀잔도 있구나.

공짜
이게 쉬운 일인가. 바닷가에서 옷 장사를 하는 그녀는 걸핏하면 공짜로 옷들을 나누어 준다. 장사는 그게 아닌데,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망할 것 같은데 그녀의 가게는 여전히 건재하다.

고객과 만나는 30 분 정도, 사업은 뒷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만 한다.
와 멋져.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 데.



내가 미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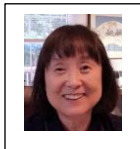
“전기 연결선 좀 주세요”
구세군 종을 치는 청년이 일하는 데 다가와 말한다. 일하는 도중에 나가면 찍힌다.
“일곱시에 쉬는 시간인데 그 때 드릴게요.”
휠체어 충전 시키는 익스텐션 코드를 빌려 주려고 마음 먹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배고파요’, ‘돈좀 주세요’ 그 뒤로 이와 같은 두가지 부탁이 더 있었는데 정말로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만 요구를 했다. 돕지 못했다. 어휴 찜찜해.

원손이 모르개 >>>

하나님의 은혜

내 오랜 친구에게

-유인영기자-



지금 이곳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열한시 35 분인데 참 조용하다.

밤
하늘을 보니 아주 예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수없는 별들이 빛나고 있다.

어쩔 저 별이 그 때 아기 예수를 비추던 그 별이었을지도 몰라.

깜깜하고 차가운 겨울 밤하늘을 저리도 곱게 빛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참, 신비스럽다.

은공(시인의 마을)

가끔씩 우리 교회 단독에 교인들의 시들이 올라온다. 메마른 이민 생활 어디에 그런 시심을 감추어 두셨는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순수의 꽃밭으로 간다. 한상우목사님의 제안이 들어왔다. 은혜공동체교회의 약자인 '은공' 뒤에 (시인의 마을)을 붙자고.

시는 짧고 깊어서 좋다.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 깊은 의미를 찾아 낸다.
시는 따뜻해서 좋다.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데 시만큼 좋은 것이 없다.
시는 긴장이 있어서 좋다. 험렐레 풀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어진 것 치열하게 살기 위해 허리 띠 조이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
시는 사랑이 있어 좋다. 가장 예민한 언어로 가장 높은 사랑을 늘 요구한다.
삶을 시로 실천하는 성도들, 그게 우리 교인들이다.



선교 소식: 해외선교의 8 가지 영역 -1-

해외 선교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해외 선교의 현황과 방향등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플러튼 신학 대학의 박기호 교수의 글을 연재한다.

세계 2,000 여 선교단체에서 파송 받은 100,000 여명의 선교사들은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다음 8 종류의 선교활동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은 선교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선교방법들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1. 표준 선교단체

표준 선교회는 모두가 따라야할 표준 모델이란 뜻이 아니라 전형적인 선교기관을 말한다. 표준선교란 “어디든지 가서 전도와 교회 설립의 사역을 하며 그 기초 위에서 무엇이든 필수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다.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 교파선교회들, 그리고 에스아이엠과 같은 초교파선교회들을 포함하여 오래된 교회설립 기관들을 말한다. 표준 선교단체들의 **장점들**

표준 선교단체들은 폭넓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들의 집중사역은 교회 설립에 있다. 에스아이엠의 목적 설명이 이를 잘 묘사해준다. “에스아이엠의 목적은 교회를 설립하여 든든히 세우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단점들 표준 선교단체들의 단점들 가운데 하나는 비전과 초점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보면 초점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빠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또 다른 단점은 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치우치거나 기존 사역을 강화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선교단체라면 양면을 열매 맺는 긴장 속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목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에서는 선교지 한글대책을 선택해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이유진기자-

이른 아침 뿔 뜰에 사슴 두마리가 나타 났다. 엄마사슴과 아기사슴이다. 먹거리를 찾아 한참동안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슴을 지켜 보면서, 인간과 동물세계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그로 인하여 양심과 도덕 그리고 종교의 출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의 종교 인구수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단연 우위에 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오한 유일한 진리로 믿는다. 성경은 총 66 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이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안내 하는 영혼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존 하는 영적인 메커니즘이다. 개인과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의 확장을 기대해 본다.



목장과 선교지		
선교지	담당자	선교사
과테말라	김양중	김경택
우간다	강 샘	조이선교회(김진희)
가나	안예림	Chris Insaideo
이집트	구민희	탁수연
탄자니아	노푸른	조병훈
Haiti	강요한	Philipson & Kelsea Georges
CEF		황의정
쿠바		김현진, 장경순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선교지와 목장을 위해 특별기도를 합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선교는 영적인 면과 아울러 한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 차례다. 더 넓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더 나은 국가들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달의 선교 기도제목

우간다: 김진희선교사

목자: 강샘, 강수잔

- 남아공 사역(신학교 강의/연구/장애 학교 지원)
- 직업학교 운영
- 더 많은 수호천사를 위해
- 아프리카 인근 지역 사역
- 김진희선교사 가정과 조이 선교단체를 위해서



여기 은공 마음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기 예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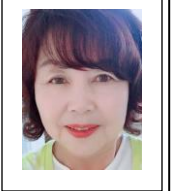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한마디 >>>

-강수잔기자-

“주여!” 이 한 마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동트기
전 새벽 시간 기도를 드린다.
찬양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각자의 사연들이 그 분께
올려진다.
속삭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누군가의 “주여”
한 마디가 큰 울림으로 가슴을 친다.
“주여” 그 한 마디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백마디 천마디의 말 보다 깊이 있게 내게
다가온다.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
마디에 내 영혼의 귀가 열린다.
육체가 무너진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한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 귀에, 내 가슴에
또렷이 전해 온다.
어느 사이 나 또한 주여 그 한 마디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애야.”
주님께서도 한 마디 하신다.
알 것 같다.
주님의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편집 후에

-2020년이 밝았다. 새해다.
새해이고 싶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 훌훌 털고
힘차게 일어서서 달리는
한해가 되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당연하다.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서 만드셨는데
당연하다.
그 축복 속에서 2020년을
살자.

-행함을 위한 기도 제목
행함 잡지사 설립
저를 포함해 함께 일하시는
편집인, 기자님들 모두
정직원이 되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아래에
있는 제 웹사이트에 가서서
물건을 구입해 주시면 그
꿈이 성큼 앞으로 다가
옵니다.



2020년은 다니엘 금식과 10일 특별 새벽기도회로 시작합시다

“2020년은 우리 은혜공동체 교회에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이루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 금식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니엘 금식은 구약의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였던 기도를 토대로 현대에 좀 맞게 각색하여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고기와 기름진 음식, 밥, 빵, 커피 등을 먹지않고 야채와 과일 중심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미디어 금식을 하며 남는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합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신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금식하기 어려운 분들은 미디어 금식은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며 준비한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2020년을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려면 다니엘 금식으로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합니다. 같이 동참하시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설교 후 결단의 시간에 나오셔서 헌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다니엘 금식기도와 더불어 첫 10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2020년 기도제목과 가지고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들어간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인지 응답이 신속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그리고 토요일은 6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니엘 금식과 10일 특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는 2020년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공동체교회 아자!

은혜공동체교회

별불일은 없지만 해불 일은 많은 교회

Service & Meeting (예배 안내)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1: 30pm

후원
김복성
임재철

발행인: 안형준목사
편집인: 김양중/장샘
기자: 유인영/ 이유진/ 강수잔

www.samguitar.net

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이 사이트로 가세요. 가지면 아마존 광고가 있어요. 아마존 광고에 들어가셔서 물건 구입해 주시면 수익금이 행함으로 들어 옵니다.



14640 Soucy Pl.
Centreville, VA 20120
703)625-3979